

옛 혼진: 다케우치 고자에몬 저택

이 건물은 본래 기노모토주쿠 역참 마을을 지나는 다이묘(영주) 및 신분이 높은 손님을 맞는 여관인 '혼진'이었습니다. 이곳은 다케우치 가문의 소유였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다케우치 가문은 혼진 운영과 더불어 한방약을 제조 및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 22대 가주이었던 다케우치 고자에몬(생몰년 미상)은 약사 자격을 획득합니다. 다케우치 가문의 약국은 이제 다른 건물로 이전했지만 가족 사업은 약 170년간 이어져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교토로, 왼쪽으로는 에도로

이 석재 표지판은 예전에 이 교차로에 있던 이정표의 재현품입니다.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핫코쿠 가도는 교토를 향하며, 서쪽으로 이어지는 핫코쿠와키 오칸 도로는 에도(오늘날의 도쿄)를 향합니다.

섬개벚나무

커다란 섬개벚나무에는 여행자들이 근처 냇가에서 발을 씻거나 말굴레를 씻기 위해 들렀던 휴식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강력한 힘을 가졌던 다이묘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가 이곳에 자신의 말을 묻었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 채찍을 땅에 꽂았고, 그 채찍에서 싹이 터 섬개벚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